사회주의 이념이 근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브루노 타우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Socialistic Ideology on Modern Architecture

- Case Study of Bruno Taut -

김 두 순*

Kim, Doo-Soon

(한동대학교 건축설계공학과 교수)

정 재 원

Jung, Jae-Won

(한동대학교 건축설계공학과 석사)

Abstract

The formation of modern architecture during the Weimar Republic in Germany is seen through the works by Bruno Taut, one of the leading architects during that period. Through the extensive literature readings on Bruno Taut and critical analysis of Bruno Taut's ideologies, his works and the circumstances that he was in, the conten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root of modern architecture has less to do with functionalism and new technologies, but more to do with need to express new ideologies and expressions of their view of a new society. Although the socialistic idea did not account for sole reason for influencing their architecture, it did play a considerable part in deciding what architectural expressions are preferred. For this discourse this paper limits Bruno Taut's years from 1913 to 1932 prior to his exile from Germany; 1913 to 1923 being the years that constitute theoretical activities and 1923 to 1932 being the golden years for social housing when he participated on many public housing project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his architecture put importance of practicality, and utilitarian; however the transition was not an abrupt departure from his expressionistic architecture but an inclusive act on his part.

주제어 : 브루노 타우트, 이데올로기, 근대건축, 바이마르공화국, 신건축운동, 사회주의

Keywords: Bruno Taut, Ideology, Modern Architecture, Weimar Republic, Neues Bauen, Socialism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1세대 근대건축 역사가¹⁾들은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을 독특한 양식에 따라 정의하고 분류한다. 그러나 근대건축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은 주로 양식적인 형태(stylistic form)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를 정의하는 방식은 건축구조의 진보를 파악하는 것과 동화된 경향이 있다.²⁾ 그러나 형태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선 감각으로 지각되는 구체적인 형태인 'Gestalt'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형태에 선행하는 구체적인 형태인 'Form' 모두를 고려해야만 하는데³⁾ 영어의 'Form'은 독

* Corresponding Author : adk@handong.edu

1) James-Chakraborty K, German Architecture for a Mass Audience,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0, p.1
Kathleen은 1세대 근대건축 역사가들로 필립 존슨(Philip Johnson), 헨리 러셀 히치콕(Henry-Russell Hitchcock), 지그프리트 기디온(Siegfried Giedion) 니콜라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을 들고 있다.

2) James-Chakraborty K, 2000, p.2

3) Barnstone D.A, The Transparent State : Architecture and Politics

일어의 ‘Gestalt’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⁴⁾ 근대건축의 형성기였던 20세기 초 독일의 건축운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선,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요소들과 형태지각 그 자체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극심한 긴장의 시기였다. 세계대전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들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고,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상당히 향상시켰던 동시에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도시인구집중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했으며,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란 매우 비참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많은 토론들과 추후 근대 건축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건축적 시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상을 고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으며, 대부분의 표현주의 예술가들은 열악한 도시환경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도시를 음산하고 우울하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다.⁵⁾ 사회주의는 비극적인 사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인식되었다.

건축은 시대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인간환경이며, 이데올로기와 사회사상을 형태로 재현해낸다. 건축은 늘 당대의 정치사회적 관점을 함축하고 표현해왔다. 구체적인 건축양식과 유형이 특정한 정치환경이나 프로그램과 동일시되었던 것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있어왔던 사실이다. 건축과 정치를 연결 짓는 태도는 역사적 경험과 집단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의사와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⁶⁾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1880~1938)는 초기 근대 건축운동의 선구자들 중 한 명이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는 초기 표현주의 운동에 대부분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⁷⁾,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 시기 신건축운동(Neues Bauen)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시기에 발생한 건축적 표현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표현

하고 있었으며, 근대건축의 구체적인 형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 다수의 건축그룹을 조직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디온은 “Space, Time, and Architecture”에서 타우트에 대하여 유리 파비리온(Glass Pavilion)과 바이센호프 단지(Weissenhof Housing)만 언급한 것 같이⁸⁾ 불행히도 그는 영어권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건축가들 중 한 명이다.⁹⁾

이는 그가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으며 그나마도 관련 자료의 많은 부분이 나치독일 시기에 소실되었다는 것¹⁰⁾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근대 건축의 주요 흐름에서 표현주의를 제외시키는 경향에 있다. 초기 역사가들은 근대건축을 정의할 때 당대의 사회환경에 반응해 나타난 인간환경으로서의 건축이나,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의 건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태와 양식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것이다. 타우트의 건축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던 사회주의의 영향은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간과되었다.

산업화의 그늘과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비참한 상황은 그를 타개할 해결책의 마련을 신속히 요구하고 있었으며, 타우트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 대부분에게 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이념적 근원이 되었다.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형태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시기의 건축운동은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사회민주당 정권의 지원은 새 시대를 향한 건축가들의 이상향을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¹¹⁾

마크 위글리(Mark Wigley)는 “모더니티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이기에 앞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의 생산이다.”¹²⁾라고 말했다. 근대적 자아의 표현으로서의 근대운동(modern movement)이었던 근대건축을 관찰하기 위해선, 마땅히 그 형태적 표현을 만들어 낸 시대적 상황과 사상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의한 당시의 사회 인식에 대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in Postwar Germany, Routledge, London, 2005, p.18

4) Forty A,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p.215

5) Kelli Olgren-Leblond, *Reading Expressionist Architecture: German Modernism and 'Paper Architecture,' 1914-192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2008, p.17

6) Lane B.M, *Housing and Dwelling: a Reader on Modern Domestic Architecture*, Routledge, New York, 2006, p.259

7) Pehnt W,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1991, p.130

8)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7, p.480

9) Blundell-Jones P,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rchitectural Press, Oxford ; Boston, 2002, p.85

10) Blundell-Jones P, 2002, p.85

11) Lane B.M,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259

12) Wigley M,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2001, p.31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본론은 총 4장(2장~5장)으로 구성되었다. 2장과 3장의 시대적 배경은 1913년부터 1923년 사이로 2장은 브루노 타우트의 건축에 나타난 사회주의 이념을 고찰하고 있으며, 3장은 그의 건축에서 보이는 표현주의적 경향을 기술한다. 4장과 5장의 시대적 배경은 1923년부터 1932년 사이로 4장은 그가 추구하였던 합리적 건축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5장은 타우트의 사상과 이념이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편의상 근대건축의 주요한 특징들 중 색채(color), 지붕(roof), 파사드(façade), 재료(material), 매싱(massing)의 5개의 항목을 선택하고 구분하였으며, 필자는 위와 같은 건축적 표현형식들이 단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출발하여 실용성과 개인적 건축표현(expression)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2. 브루노 타우트 세계관 내 사회주의의 영향

20세기 초 대부분의 표현주의 예술가들과 비평가들처럼 브루노 타우트 역시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회정치적 철학에 흥미를 느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노동계급이 처한 현실문제와 공동사회의 신념(communal ideas)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한 명의 사회주의적 사회개혁자로서 타우트는 그가 추구했던 사회주의 세계관을 여러 건축작업들과 저작활동 또는 선언 등을 통해 표현하였다. 타우트의 표현주의적 드로잉과 문서들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고딕성당으로 상징되는 종교 공동체적 사회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의 저서 『도시의 관』 <Fig.1>은 사회주의 사상이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Christianity)라 언급하고 있다.¹³⁾

Fig.1 Bruno Taut, The City Crown, 1919, bird's eye view, looking west (Altenmuller, U. and Mindrup, M., 2009, p.128)

브루노 타우트는 사회주의 사상을 비정치적인 측면에

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주의란 간단히 말해 권위적인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투쟁 중인 계급과 국가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 사이의 보편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애(humanity)에 의한 연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¹⁴⁾ 타우트에게 사회주의란 당시의 도시에 관(crown)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사상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는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⁵⁾ 그는 건축가는 마땅히 사회의 조직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작업은 교훈적이어야 하고, 당시의 정치이념을 재생산하거나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중심적인 대칭성이나 기념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디자인 특성에 저항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⁶⁾

많은 표현주의자들처럼 타우트는 노동연합을 지지하였으며 1918년의 11월 혁명(November Revolution)에 참여하였다. 11월 혁명의 리더들 중 하나였던 막스 페히슈타인의 그림<Fig.2 & Fig.3>에서 묘사된 것처럼, 당대의 예술가들은 사회주의를 상징했던 붉은 십장과 함께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분투했었다.¹⁷⁾

Fig.2 Max Pechstein, Fig.3 Max Pechstein, Arbeitsrat für Kunst, (To All Artists!), 1919 1919 (Long, R., 1993, plate #37) (Long, R., 1993, plate #38)

타우트는 그로피우스, 베네와 함께 예술노동평의회(Arbeitsrat für Kunst, AFK)<Fig.3>를 설립하였는데,

14) Weitz E.D, *Weimar Germany: Promise and Trage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07, p. 175

15) Altenmuller U & Mindrup M, 2009, p. 126

16) Gutschow Kai K, *The Culture of Criticism: Adolf Behne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Germany, 1910~1914*,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Colombia University, New York, 2005, p. 309

17) Guttman W.L, *Art for the Workers: Ideology and the Visual Arts in Weimar German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St. Martin's Press, Manchester ; New York, 1997, p. 68

13) Altenmuller U & Mindrup M, *The City Crown by Bruno Taut*,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63, No. 1, 2009, p. 126

이는 쿠르트 힐러(Kurt Hiller)의 행동주의문학 운동이 성장한 결과였으며, 지식인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타우트 역시 그러해서, 그는 AFK 건축가들의 역할이 사회의 모든 시각환경을 제어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¹⁸⁾ 나중에 타우트는 AFK의 수장직을 그로피우스에게 넘겨주는데, AFK는 1919년 12월 11월 그룹(Novembergruppe)에 흡수되었다.

이후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Bauhaus)를 설립하고, 시민주의의 프레임에서 건축의 주도 하에 예술의 전 분야를 통합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바우하우스 선언문에 수록된 리오넬 파닝거의 목판화(the cathedral of socialism)<Fig.4>는 3개의 별에 의한 예술의 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주의적 이념 하에서 예술의 전 분야를 통합하고자 했던 브루노 타우트의 노력과 의지가 바우하우스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4 Lyonel Feininger, The Cathedral of Socialism, Bauhaus Manifesto, 1919 (Long, R., 1993, plate #41)

3. 브루노타우트 건축의 표현주의

3-1. 표현주의의 구성요소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입체파와 야수파의 영향이 더해져, 당대의 예술적 경향은 더욱 추상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었다.¹⁹⁾ 전쟁이 낳은 극심한 불경기로 실제 건축프로젝트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가

들 사이에 생각의 제한에서 벗어나 상상의 건축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²⁰⁾ 이러한 건축적 경향을 브루노 타우트는 독일의 표현주의 경향의 잡지인 “Der Sturm”에 “A Necessity(1914)”라는 이름으로 기고하는데, 이는 표현주의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서술한 글로 평가되고 있다.²¹⁾ 타우트는 여기서 표현주의 운동의 특징적 개념으로 ‘정신적 건축과, 그 건설을 위한 연합, 상징적 건물의 건설, 건물의 경제성, 연합과 협동방법을 들고 있으며, 그것의 건축적 적용과 표현방법론’을 서술하고 있다.

3-2. 유리 파빌리온

1914년 독일 쾰른(Cologne)에서 열린 공작연맹 박람회(Werkbund Exhibition)에 전시된 타우트의 글라스 파빌리온(Glass Pavilion)<Fig.5>은 초기 표현주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²²⁾ 이중외피의 유리돔에서 그는 지붕, 벽, 계단 등에 유리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유리 건축을 통해서 이상적인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 작가 폴 쉐바르트(Paul Scheerbart)의 영향이었는데, 건물의 파사드에 그의 경구인 “유리가 우리에게 새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벽돌문화는 우리에게 오직 해악만을 끼쳤다.” “색유리는 증오를 파괴시킬 것이다.”등을 새김으로써 파빌리온을 쉐바르트에게 헌정하였다.²³⁾ 이로써 글라스 파빌리온이 쉐바르트의 이상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서 역할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²⁴⁾

Fig.5 Bruno Taut, drawing of the Glass House for opening program of the Werkbund Exhibition in Cologne, 1914 (Frampton, K., 1992, p.117)

20) Long R-C.W, Rigby I.K, et al, *German Expressionism : Documents from the End of the Wilhelmine Empire to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lifornia, 1993, p.122

21) Colquhoun A, 2002, p. 89; Gutschow Kai K, 2005, p. 243; Long R-C. W, Rigby I.K, et al, 1993, p.124

22) Kolinsky E, Will W.v.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odern German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p. 29; Margolin V, *Paul Scheerbart, The Gray Cloth*,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16 No. 1, 2003, p.1

23)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London ; New York, 2007, p.116

24) James-Chakraborty K, 2000, p.48

18) Colquhoun A,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p.95

19) Colquhoun A, 2002, p.87

타우트가 글라스 파빌리온에 대하여 “이 건물은 순전히 실제적인 용도일 필요는 없다. 건축도 공리주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글라스 파빌리온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외 아무것도 없다.”²⁵⁾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보면 타우트에게 유리란 단순히 건축 재료나 기술적 용어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계몽의 특성들(투명성, 정직성, 영속성, 순수성, 빛의 제공자 등)을 건축에 표현하였다.²⁶⁾ ‘A Necessity’에서 그는 고딕성당이 지닌 정신적 건축²⁷⁾의 의미를 언급하였는데, 그의 파빌리온은 이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글라스 파빌리온을 소개하기 위해 브루노 타우트가 작성한 팸플릿<Fig.5>의 “유리건축은 고딕 성당의 전주곡이다(Der Gotische Dom ist das Praludium der Glasarchitektur)”는 문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는 근대건축의 모델로 삼고자 한 고딕의 정신적 의미를 글라스 파빌리온에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구조적 표현에 있어서도 고딕에서 영감을 얻어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²⁸⁾

3-3. 문서를 통한 건축 (Paper Architecture)

1918년에서 1921년까지 타우트는 여러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공상적 스케치 및 도서출판에 집중하였다. 그 시기 동안 타우트가 출판한 책들에는 『도시의 관(The City Crown, 1919)』 『도시의 해체(Dissolution of the cities, 1919)』 『알프스 건축(Alpine Architecture, 1919)』, 잡지 「Dawn」 등이 있다. 전쟁 직후의 특성 상 실제 건축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일이 드문 상황 하에서 집필을 통해 이상사회를 표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²⁹⁾ 타우트는 저서 『알프스 건축』의 서문에서 ‘모든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이 작업의 가치는 그 자체와, 건축의 근본적 질문들의 대한 해결과 정화에 있다. 따라서 형태는 종교적 공동체 자체의 문화에 따라 창조된다.’라고 서술하였다(Curtis, 1996).

『알프스 건축』은 스케치이다. 여기서 브루노 타우트는 스위스 알프스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설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환경에 인간을 위치시킴으로써, 인간의 기

술로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과 대비되는 유기적이고 평화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³⁰⁾ 그러나 그가 실제로 알프스에 가 본적이 한번도 없었다³¹⁾는 사실은 타우트의 유토피아적 스케치들과 당시의 종이 위 건축들(paper architecture)이 실제 건축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 및 표현의도에 집중해 평가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3-4. 정치적 적용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는 새 시대의 비전에 대한 열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1918년엔 11월 혁명이 일어나 카이저 빌헬름(Kaiser Wilhelm)이 퇴위하고, 사회민주당에 의해 바이마르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은 표현주의 건축가들과 예술가들, 작가들을 재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공화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새롭게 재구성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공동 공간적 건물을 건설하고자 하였다.³²⁾

1918년 11월 브루노 타우트의 주도 하에 설립된 예술노동평의회(Arbeitsrat für Kunst)의 구성원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에 기여한 11월 그룹(Novembergruppe)의 구성원들과 대부분 중복되었다. 예술노동평의회는 소련의 Worker's Soviet를 모델로 하였으며, 근본 목표는 타우트가 1918년 12월 건축강령(architektur programm)을 통해 선언한 바와 같이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국가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예술이 건축의 지시 하에 연합할 것이다.’였다.³³⁾ 이는 혁명적 노동자 그룹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건축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목표를 선언하는 경향이였다.³⁴⁾ 또 그들은 노동자들과 급진적 예술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1919년 1월에 실시되었던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포스터 제작이 그 예이다.³⁵⁾

예술 특히 건축에는 인간의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브루노 타우트의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시작했던 예술노동 평의회는 1921년 5월에 해

25) Taut Bruno, *Glashaus: Werkbundaustellung*, Cologne, 1914, quotation used in I.B. Whyte's 'Bruno Taut and the architecture of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0 (first published 1982)

26) Blundell-Jones P, 2002, p.87

27) Frampton K. 2007, p.116

28) James-Chakraborty, 2000, p.48

29) Curtis W.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Uppers Saddle River, 1996, p.183

30) Long R-C.W, Rigby I.K, et al., 1993, p. 171

31) Weitz E.D, 2007, p.173

32) James-Chakraborty K, 2000, p.41

33) Long, R.-C. W., Rigby, I. K., et al., 1993, p.173; Dundar M, *Concept of 'Social Life' in Architecture: A study on Bruno Taut's Thought-1*, Journal of AIJ, Vol. ,No. , 2004, p. 770

34) James-Chakraborty K, 2000, p.41

35) Long R-C.W, Rigby I.K, et al., 1993, p.173

12 논문

체되며, 11월 그룹에 합병되었다. 그 이념은 유리사슬(Glass Chain)의 활동을 통해 지속되지만, 노동계급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의지는 비교적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이상과 예술을 통합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열망은 이후, 바우하우스(Bauhaus)의 형성까지도 이어져 큰 영향을 주었다.³⁶⁾

1919년 4월 예술 평의회가 주최한 무명건축가전시회에서 그로피우스가 쓴 서문인 ‘예술의 궁극적 목표는 미래의 대성당이라는 창조적 이념이며, 이를 위해 예술의 각 분야들이 공동의 전우가 되어 연합하여야 한다.’³⁷⁾는 문구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는 같은 달에 발표된 바우하우스 강령과 사실상 동일한 원고였으며, 1918년에 발표된 브루노 타우트의 건축강령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새로운 문화의 통일이 새로운 건설기술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³⁸⁾

4. 타우트의 건축이론 바탕

람프냐니(Lampugnani, 1985)는 브루노 타우트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적 형태의 ‘표현주의 경향’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축한 주거단지의 ‘합리주의 경향’ 사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³⁹⁾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신건축(Neues Bauen)’운동에서 보여준 합리주의적 모습을 두고, 그가 초기의 표현주의를 버리고 기능주의로 전향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실제로 타우트는 초창기 작업부터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요소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는 실용적 개인주거(practical individual dwelling)와 상징적 공공건물(symbolic public building)을 동시에 작업했으며, 개인적인 것(individual)과 국가적인 것(the Volk)을 초월하고 결합하는 작업들을 보여준다. 그 결합 방식은 객관적 요구를 따르되 그들 중 하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식이었다.⁴¹⁾

타우트에게 참된 건축이란 실용적 목적과 정신적이며

미적인 필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사회적 삶이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야 비로소 조화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⁴²⁾ 이는 「A Necessity」에서도 언급됐던 바인데, 그는 미술 등의 다른 예술과 달리 건축은 예술성 외에도 건설적·사회적·경제적 필요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브루노 타우트가 말하는 합리성(Rationality)은 합리주의(Rationalism)가 보여주는 양식적 특성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그는 건축을 통해 새로운 덕성과 사회의식이 창조될 수 있다고 믿었고 건축이 인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이상세계와 같은 영적 필요들을 포함한다. 신건축 운동을 통해 보여준 공공주택건설은 그의 합리적 건축활동을 명백히 보여준다.

타우트와 신건축운동가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기 원했으며, 전쟁 후의 사회적 변화들을 반영하여 문화적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길 원했다. 변화를 위한 방법상의 논의가 크게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디자이너와 계획가들이 반드시 대중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엘리트만을 위한 건축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둘째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에게 봉사하길 원한다면, 대중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용성(utility)과 표준화(standardization),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강하게 장려되었다.⁴³⁾ 대부분의 주택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맞춰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보장하며 장식을 배제한 형태로 표준화된(standardized) 재료를 이용해 조립식으로 지어졌지만, 그들은 화사하게 채색되어 있었다.

5. 건축을 통한 사상의 표현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축가들은 정치적인 방법 외에 건축적인 방법으로도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표현하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된 사회주의적 환경이 대중의 가치관 형성에 더욱 크게 역할하기 원하였다. 물론 그 가치관은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의미한다.⁴⁴⁾ 이 시기의 건축을 통

36) James-Chakraborty K, 2000, p.41

37) Frampton K, 2007, p.123

38) Frampton K, 2007, p.124

39) Magnago Lampugnani V, *Architektur u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이강호 역, 기문당, 서울, 1999, p.78

40)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휴머니스트 출판 그룹, 서울, 2008, p.74

41) Colquhoun A, 2002, p.90

42) Dundar M, *Concept of 'Social Life' in Architecture: A study on Bruno Taut's Thought-1*, Journal of AIJ, Vol. ,No. , 2004, p.769

43) Whyte I.B, *Bruno Taut and the Architecture of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shire, New York, 1982, p.119

해 나타난 근대건축의 원리와 표현들은 구시대적인 가치들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대한 시대적 반응이었고, 동시에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신과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곳곳에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주거계획들⁴⁵⁾이 시도되었다. 이들에 사용된 건축적 표현들은 근대건축의 형태 형성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다.

5장에서는 스스로를 ‘자유 안에서 평등(equality in liberty)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건축가’로 묘사하였던 타우트의 건축을 색채(Color), 평지붕(Flat-Roof), 파사드(Façade),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 매싱방법(Method of Massing)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그가 지향한 사회주의적 가치들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5-1. 색채를 통한 표현

독일의 비평가 아돌프 베네(Adolf Behne)는 타우트가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주장한 이데올로기의 표현과 지역적 스탠다드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고 평가한다.⁴⁶⁾ 표현주의 시기동안 그의 드로잉과 문서에서 나타난 생생한 색채가 베를린의 마그테부르크 임대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으며,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의미를 입증하였다.

Fig.6 Bruno Taut, Colorful Architecture in Magdeburg (Brenne, W., 1995)

(1) 마그테부르크 (Magdeburg)

브루노 타우트는 1921-1924년의 시기에 독일의 도시

44) Lane, B.M, 2006, p.259

45) Mullin J.R, 1982, p.127

Berlin, Hamburg, Frankfurt, Cologne, Karlsruhe, Celle 등

46) Gutschow Kai K, 2005, p.279

건축위원(Stadtbaurat)으로 활동하였으며, 빌딩의 파사드에 색을 입힘으로써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도시 중심부에 실체화하고자 노력하였다.⁴⁷⁾ 그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는 도시 중심부의 재생이었는데, 그는 프로젝트의 방법론에 대해 걱정하였다. 당시 독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낮은 세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⁴⁸⁾ 이는 왜 그가 궁극적으로 색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Fig.6>

색채건축선언(Aufruf zum Farbigen Bauen)<Fig.7>에서 그는 “지난 몇 십년동안 순수기술과학만을 강조한 결과, 시각적 즐거움을 없애버렸다.”고 표현하면서, 채색된 건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니스나 조각과 같은 다른 장식들과 비교해서 채색은 훨씬 경제적인 장식법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나 한스 포엘지히(Hans Poelzig)와 같은 당대의 대표적 건축가들도 ‘채색만이 공간을 정의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는 타우트의 선언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Fig.7 Aufruf Zum Farbigen Bauen (Brenne, W., 1995)

(2) 브리츠 주거단지 (Britz Siedlung-Red Front)

브리츠 주거단지의 동단(東端)은 붉은색으로 채색된 3층의 임대주택블록들로 질서정연하게 규정되어 있다.⁵⁰⁾ 타우트는 ‘Rote Front’로 알려진 붉은색의 일자형 연립주거군들이<Fig.8> 반 부르주아적인 사회주의선언이자 표현이라 설명한 바 있었다. 건물의 전면(全面)을 덮은

47) Tafuri M, *Architecture and utopia :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김원갑 역, 기문당, 서울, 1991, p.176

48) Mullin J.R, 1982, p.121

49) Porter T, “Architectural Form and Colour”, in Farmer, B and Napper, A. (2008); *Compan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Thought*, Trans by Jang, Jung-Jae, (Space Time Publisher, 2008), p.495

50) 이선구, 「대중주거 단지계획의 선구자 브루노 타우트」, 국토정보, 175권 5호, 1996. p.85

붉은색은 그가 표현주의 시기 드로잉에서 새 시대의 상징이라 여겼던 유리 건축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색이다. 사민주의 정당이었던 당시의 집권여당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색이기도 했다.

Fig.8 Site plan of Britz Siedlung (Nerdinger, W. and Taut, B., 2001)

이데올로기적 선언의 표현수단으로써 붉은색을 파사드에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Red Vienna 시기에 건설된 임대주택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였던 오스트리아(1918-1934)의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도시팽창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부족문제와 주거환경의 악화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째 임무이자 사회주의 이념의 완수를 위한 필수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사민주의의 상징이자 오스트리아식 맑시즘의 정치적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었다.

당대 주택단지의 모범사례가 된 칼 언(Karl Ehn)의 칼 맑스 호프(Karl Marx Hof)는 상징적 표현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건축적 현현(顯現)이었다.<Fig.9> 전면(全面)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으며, 지들룽(Siedlung)방식에 비해 열등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기념비로써 강한 매력을 갖고 있었기에 사회주의 정부의 상징적 건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⁵¹⁾

Fig.9 Red front of Karl Marx Hof, Drawing by M.Aubois, Guides Gallimard, Vienna (<http://www.demokratiezentrum.org/en/knowledge/stations-a-z/life-in-w-housing.html>)

51) 이상현, 「아돌프 로스의 건축론에서 ‘예술과 실용품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권3호, 2003, p.139

5-2. 평지붕 (Flat Roof)

신건축계획을 통해 건설된 주거단지의 건축적 표현에 있어서 건축의 형태와 양식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고정된 건축양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주택계획이 실행됐던 시기에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다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 중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임대주택들에서 발견되는 평지붕은 독일근대건축의 정치사회적인 어젠다(agenda)를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⁵²⁾ 이러한 양상은 1928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지붕싸움(Dacherkrieg)사건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1928년 8월, 중산층을 대표하던 건설협회인 GAGFAH (Gemeinnützige Aktiengesellschaft für Angestellten-Heimstätten)는 그들의 이념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켈렌도르프(Zehlendorf)의 남서쪽에 암 피슈탈그룬드 지들룽(Siedlung Am Fischtalgrund) 주거단지를 설계하였다. 자신들의 이념적 본질에 입각한 전통적 건축형태와 양식을 추구하였던 GAGFAH는 이를 위해 하인리히 테세노우(Heinrich Tessenow), 파울 메베스(Paul Mebes), 빌헬름 조스트(Wilhelm Jost)와 같이 바이센호프 주거단지(Siedlung Weissen)에 참여한 건축가들보다는 덜 급진적인 건축가들을 초청했었다.⁵³⁾ 이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던 GEHAG(Gemeinnützige Heimstätten-Aktiengesellschaft) 건설협회는 GAGFAH의 주거단지와 나란히 위치한 곳에 극도로 근대적인 양식의 주거복합단지인 발드 지들룽(Waldsiedlung)을 건설함으로써 반응했다.<Fig.10>⁵⁴⁾

Fig.10 Dacherkrieg (roof war) in Zehlendorf, 1928 (Mengin C., 2007)

52) Grewe C. & Neumann D, *From Manhattan to Mainhattan: Architecture and Style as Transatlantic Dialogue 1920-1970*, GHI, 2005, p.5

53) Hobbs M, Visual representations of working class Berlin 1924 ~1920,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2010, p.180

54) Hobbs M, 2010, p.185

GEHAG의 설계자들은 브루노 타우트를 비롯해 오토 루돌프 살비즈베르그(Otto Rudolf Salvisberg), 휴고 헤링(Hugo Haring)이었으며 가장 명백한 차이는 물론 그들의 지붕이었다.⁵⁵⁾ 이는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이론적이며 이념적인 투쟁이 반대의 지붕형태로 가시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⁵⁶⁾ GAGFAH와 GEHAG의 논쟁으로 대표되는 평지붕논란은 두 건설협회의 대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좌파 성향의 GEHAG와 보수성향의 GAGFAH 간의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GEHAG는 경사지붕이 지나는 이념적 관점에 반대하면서 평등함을 상징하는 평지붕 주거단지를 설계하였다. 타우트가 설계한 개인주택 중에는 평지붕이 아닌 작품도 있는 것을 볼 때, 타우트의 평지붕은 단지 기능적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세계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는 평지붕 형태를 채택했었다. 이는 건축언어를 통해 보수 부르주아적 세계에 사회주의 가치를 선언한 것과도 같았다.

지붕싸움을 단순히 근대양식과 전통양식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쟁의 극히 일부분만을 파악한 결과이다. 이 사건은 좌파와 우파간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의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과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저항의사를 가시화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펜과 잉크로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듯이 그들은 벽돌과 암석을 쌓음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표현하였다.⁵⁷⁾

Fig.11 Wohnhaus Taut in Dahlewitz (Winfried Brenne, 2008, p.110-111)

<Fig.11>은 타우트가 1927년에 설계한 개인주택의 후면부이다. 들어가는 현관은 길가 쪽으로 향해있으며 원을 4등분한 매스(mass)가 곡선으로 처리되었고 흰색채

의 뒷모습과 달리 앞부분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옆으로는 사각형의 매스가 4등분된 매스와 겹치고(overlap)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코니 위 지붕과 집 앞부분이 각이진 프리즘(Prismatic) 유리로 처리한 것이다. 이집은 기능적이라고 보기보다 색채, 유리, 주변, 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속의 건축적 요소들이 그가 추구하였던 건축을 통한 자신의 사상의 화합을 시도하였다고 본다.

5-3. 파사드 (Facade)

이전까지 파사드는 개인이나 계급의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타우트는 이러한 방식의 파사드 이용이 부르주아적인 문화라 믿었다. 그와 동료들은 특정개인이나 계급의 이상 대신 사회적 가치를 표현하는 파사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장식적 요소(decorative elements)를 색채나 각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이념을 파사드에 적용시키게 된다. 이러한 파사드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전하고 그들의 이상을 선포하는 표현적 요소가 되었다.

베를린 브리츠 주거단지는 단독 계단실만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갖고 있었으며 아무런 장식이 없는 파사드가 연속되는 모습을 보인다.⁵⁸⁾ 타우트는 파사드를 계급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타도하고자 했다. 브리츠 주거단지의 파사드는 표준화된 조립식 건설재료와 유닛을 이용했으며, 더 나아가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창문들로 평등을 표현했다. 사실 건물 내부엔 조금씩 다른 규모의 생활공간들이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사드 구성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계급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감을 고취시켰다.

당시 건축에서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려 했던 예는 아돌프 로스(Adolf Loos)에게서도 발견되나 그의 의도는 타우트와는 다른 것이었다. 저작인 『장식과 죄악(1908)』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순수형태가 가진 ‘미학적 우위’를 증명하려 했다. 레드비엔나 시기 로스가 ‘호프’형식의 주거단지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적 건축을 원했던 집권여당이 ‘지들룽’형식을 선택하자 시건축가 자리를 사직했던 에피소드 역시 이를 입증한다. 그 형태적 유사함과 달리 디자인의 발원과 의미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타우트가 추구한 참된 건축이란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55) Hobbs M, 2010, p.180

56) Magnago Lampugnani V, 1999, p.199

57) Hobbs M, 2010, p.181

58) Magnago Lampugnani V, 1999, p.178

5-4. 유리 - 건축 재료

근대건축에서 유리는 지나치게 사용된 경향이 있다는 비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통 실용적인 목적으로 설명되어왔으나 이는 유리가 지닌 비실용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⁵⁹⁾ 유리란 단순히 새롭고 근대적인 재료가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20세기 초반의 표현주의 건축가들은 유리를 건축적 신념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표현주의 프로젝트들은 타우트 그룹과 예술노동평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는데⁶⁰⁾ 이들은 일관된 형태언어를 수반하는 구별된 양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드로잉을 양식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게 사실이다.⁶¹⁾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재료는 유리나 수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어떤 형태든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는 유리의 점성 때문으로 표현주의의 색다른 형태들을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⁶²⁾

앞서 브루노 타우트가 글라스 파빌리온을 폴 쉐바르트에게 헌정했음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당대의 근대건축가들이 ‘유리는 새로운 시대와 정신을 의미한다.’⁶³⁾는 폴 쉐바르트의 사상적 기반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색유리는 타우트와 동시대인들에게 전쟁의 고통과 대비되는 기쁨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타우트를 비롯해 그로피우스, 샤로운, 루크하르트, 미스 등 당대의 주요 근대건축가들 역시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성당과 유리주택, 유리기념물이 건설될 것이란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의 쓴 추억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그들의 선언과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설득적인 어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대상은 예술가나 정치인들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민중들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⁶⁴⁾

5-5. 매싱 방법 (Method of Massing)

19세기 전형적인 주거타입이었던 Tenement Block (Mietskaserne)<Fig.12>은 열악한 일조환경과 위생환경

등의 문제로 현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부적절한 주택 환경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Fig.12 Tenement Block
(Hobbs, M., 2010)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국가적 규모의 부동산 건설과 함께 Tenement Block식 주거형태를 보완하고자하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이어져, 20세기 초반엔 Block around plot edges (Randbebauung)형식이 일반적인 빌딩형태가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엔 Open parallel blocks(Zeil enbau) 형식이 우세해졌는데, 이들은 근대건축의 블록배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개념이 되었다.⁶⁵⁾<Fig.13>

Fig.13 Walter Gropius, diagram “vom Block zur Zeile (from the block to the bar)”, in *Das Neue Berlin*, 1929 (Wolfgang, S., 2005)

주거블럭을 열형(row-type)주거이론에 따라 위치시키는 것은 근대적 배치방법으로 여겨졌으며 노동계급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그들은 노동계급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더 나은 자연채광과 환기,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싱 방법을 원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신념을 옹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창조하고자 애썼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타우트는 열형이론을 단순히 형태적으로 적용하거나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경계하였다. 그는 채광의 중요성과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택지(site)의 자연적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열형주거이론을 무조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나 남향만을

59) Pehnt W, 1991, p.136

60) Bletter R.H, *he Interpretation of the Glass Dream - Expressionist Architecture and the History of the Crystal Metaphor,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 40, No. 1, 1981, p.20

61) Bletter R.H, 1981, p.20

62) Bletter R.H, 1981, p.21

63) Magnago Lampugnani V, 1999, p.78

64) Lane B.M, 1968, p.262

65) Hobbs M, 2010, p.179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으며,⁶⁶⁾ 인간의 영적인 필요 역시 충족시키는 매칭 방법을 모색하였다.

브리츠 주거단지의 복판에 위치한 말굽모양의 후페이센 지들룽(Hufeisen Siedlung)은 기존에 위치한 연못 주변의 녹지를 3층의 공동주택이 둘러싸고 있다.⁶⁷⁾ <Fig.14> 이러한 배치는 『알프스 건축』에서 보인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구체화한 것이었으며, 평면연구를 통해 그가 기존 지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설계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못을 계획에 포함시키며, 자연과의 조화를 꾀했던 건축적 자세는 쾰렌도르프 주거단지의 Siedlung Onkel Tom이 나무숲과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Fig.14 Hufeisen Siedlung (<http://www.akpool.de/ansichtskarten/82990-ansichtskarte-postkarte-britz-berlin-neukoelln-hufeisen-siedlung>)

브리츠 주거단지<Fig.14>는 이전까지 군인막사나 벌집 같은 곳에서 살아왔던 노동계급에게 위생시설, 충분한 햇빛, 신선한 공간, 녹지를 가진 널찍한 공간을 처음으로 제공한 주거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개인을 연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건축적 상징이자 ‘공동생활을 표현하는 최고의 건축형태’라는 찬사를 받았다.⁶⁸⁾

Fig.15 Site plan of Brits Siedlung, Wurdigung (Betrachtung, K., 1995)

각각의 주거에 동일한 양의 자연채광을 가능케 한 말굽형태의 평면은 그의 저서 『도시의 관(1918)』에서 보여준 사회·종교적 공동체의 도시의 관 개념이 ‘인민의 집(Volkhaus)’으로 표현된 것이었으며, 타우트는 이를 통해 평등주의의 가치를 표현하고 거주자 간에 공동체 감각을 증진시키려 하였다.⁶⁹⁾ 그가 추구하던 공동체적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현실화한 것이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연못과 녹지는 메인 야외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관리조합, 카페, 세면장 등의 서비스 기능들이 위치해 있다.⁷⁰⁾ <Fig.15> 건물의 형태를 열어둠으로써 타우트는 개인적이며 내부적인 공간과 공공적이며 외부적인 공간 사이에 구분을 없애고 공동체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노력은 쉐러파크(Schillerpark) 주거단지와 칼 레지엔(Carl Legien) 지들룽 등의 프로젝트들을 통하여서도 발견된다.⁷¹⁾

6. 결 론

1913년에서 1930년대 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중부 유럽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노동계급의 비참한 주거환경을 배경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건축도시계획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독일에서는 ‘신건축(Neues Bauen)’ 또는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이라 불렀다.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전문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이러한 움직임을 서양 근대건축사의 가장 큰 공헌자라 여기고 있으며, 이 운동의 중추적 인물이 바로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이자 베를린 파의 지도자였던 브루노 타우트이다.

1세대 건축사가들은 근대건축을 분류하고 정의할 때 표면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표현주의와 기능주의 운동마저 양식상의 형태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은 그러한 형태가 형성되었던 이유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부르노 타우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것은 근대적 형태는 기술적 가능성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그에 기반한 건축가의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으로 공유되었던 세

66) Blundell-Jones P, 2002, p.90

67) Magnago Lampugnani V, 1999, p.178

68) 이선구, 1996, p.84

69) Weitz E.D, 2007, p.179

70) Magnago Lampugnani V, 1999, p.178

71) Sennott S. *Encyclopedia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Fitzroy Dearborn, New York, 2004, p.1305

72) Mullin J.R, 1982, p.125

73) Hobbs M, 2010, p.93

계관의 결과였다고 본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대규모의 임대주택계획과 사민주의 정부의 지원 하에서, 당대의 건축가들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창안해 냈으며, 이때 ‘평지붕, 색채의 사용, 무장식의 파사드,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새로운 매싱방법’들이 근대건축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표현의 도구가 되었다.

본 연구는 타우트의 환상(fantasy)에 가까운 이념적 건축이 1923년부터 실용주의적으로 변함에 있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 사상을 실용성과 함께 복합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 브르노 타우트를 통하여 본 근대건축의 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사회적 책임과 함께 어떤 때는 비합리적인 엘리트적, 개인적 사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가 “건축의 비합리적 개념(The Concept of Arbitrariness in Architecture)”에서⁷²⁾ 코린도(Corinthian) 기둥을 만든 칼리마추(Climachus)⁷³⁾가 과연 자연을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을 보고 기둥을 창조하였는지에 대한 논지를 던졌고, 클로드 페랄(Claude Perrault)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형태가 친밀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 해왔다. 이와 같이 브르노 타우트의 건축도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들을 건축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날의 프랭크 게리(Frank Gehry)나 피터 아이젠먼(Peter Eisenman) 같은 건축가들이 브루노 타우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위지혜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Bletter R.H, The Interpretation of the Glass Dream - Expressionist Architecture and the History of the Crystal Metaphor,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 40, No. 1, 1981
2. Blundell-Jones P,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rchitectural Press, Oxford;Boston, 2002
3. Brenne W., Deutscher Werkbund Berlin, Bruno Taut : Master of Colorful Architecture in Berlin(Urban Planning & Construction), Natl Book Network, 2008
4. Colquhoun A,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5. Curtis W.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Uppers Saddle River, 1996
6. Dundar M, Concept of ‘Social Life’ in Architecture: A study on Bruno Taut’s Thought-1,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2004
7. Forty A, Words and Buildings: :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8.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London;New York, 1992
9.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fifth edition 1967
10. Giedion S, Bauen in Frankeich, Eisen, Eisenbeton (1928, republished 2000), Translated as Building in France. Building in Iron, Building in Ferro-Concrete, Getty Publishing, Santa Monica, 1995
11. Grewe C. & Neumann D, From Manhattan to Mainhattan: Architecture and Style as Transatlantic Dialogue 1920-1970, GHI, 2005
12. Gutschow Kai K, The Culture of Criticism: Adolf Behne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Germany, 1910-1914,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Colombia University, New York, 2005
13. Guttsman W.L, Art for the Workers: Ideology and the Visual Arts in Weimar German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istributed exclusively in the USA by St. Martin’s Press, Manchester ; New York, 1997
14. Hobbs M, Visual representations of working class Berlin 1924-1920,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2010
15. James-Chakraborty K, German Architecture for a Mass Audience, Routledge, London;New York, 2000
16. Kelli Olgren-Leblond, Reading Expressionist Architecture: German Modernism and ‘Paper

72) Moneo R, *Writings and Conversations in Peru*, Universidad Catolica del Peru, Lima, 2009, p.53-131

73) Morgan M.H,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Ten Books of Architecture by Marcus Vitruvius Pollio;original translation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in 1914)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60, p.104

- Architecture,' 1914-192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2008
17. Kolinsky E, Will W.v.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odern German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18. Lane B.M,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9. Lane B.M, Housing and Dwelling : a Reader on Modern Domestic Architecture, Routledge, New York, 2006
20. Long R-C.W, Rigby I.K, et al, German Expressionism : Documents from the End of the Wilhelmine Empire to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lifornia, 1993
21. Magnago Lampugnani V, Architektur und Stadtebau des 20 Jahrhunderts, 이강호 역, 기문당, 서울, 1999
22. Margolin V, Paul Scheerbart, The Gray Cloth,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16, No. 1
23. Moneo R, Writings and Conversations in Peru, Universidad Catolica del Peru, Lima, 2009
24. Morgan M.H,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Ten Books of Architecture by Marcus Vitruvius Pollio;original translation publish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in 1914)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60
23. Mullin J.R, Ideology, Planning Theory and the German City in the Inter-War Years: Part 1, The Town Planning Review, Vol. 53, No. 2, 1982
24. Nerdinger, W. and Taut, B., Bruno Taut 1880-1938 Architekt Zwischen Tradition und Avantgard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2001
25. Pehnt W,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1991
26. Sennott S. Encyclopedia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Fitzroy Dearborn, New York, 2004
27. Tafuri M, Architecture and utopia :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김원갑 역, 기문당, 서울, 1991
28. Taut B, Die Stadtkrone, Translated as The Crown City by Ulrike Altenmuller & Matthew Mindrup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63, No. 1, 2009
29. Taut B, Ein Architektur-Programm, Reprinted and translated as "A Program for Architecture" in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ed. Ulrich Conrads, MIT Press, Cambridge, MA, 1994
30. Taut, B, Eine Notwendigkeit, Reprinted and translated as "A Necessity" in German Expressionism: Documents from the End of the Wilhelmine Empir to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m, ed. Rose-Carol Washton Lo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93
31. Weitz E.D, Weimar Germany: Promise and Trage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07
32. Whyte I.B, Bruno Taut and the Architecture of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shire, New York, 1982
33. Wigley M,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2001
34. 이상현, 「아돌프 로스의 건축론에서 '예술과 실용품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권, 3호, 2003
35. 이선구, 「대중주거 단지계획의 선구자 브루노 타우트」, 국토정보, 175권, 5호, 1996

접수(2013. 1. 24)

수정(1차: 2013. 4. 29)

게재확정(2013. 4. 30)